

모정의 분포적 특성과 역사적 전개  
(茅亭의 分布의 特性과 歷史的 展開)  
- 전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田 鳳 熙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                    |                  |
|--------------------|------------------|
| 1. 서론              | 3-2. 전남지역내의 분포상황 |
| 2. 모정이란            | 4. 역사적 전개        |
| 2-1. 건축적인 특성       | 4-1. 모정의 발생      |
| 2-2. 모정의 기능과 이용    | 4-2. 근대의 변화양상    |
| 2-3. 정자, 루정과 모정    | 5. 결론            |
| 3. 분포적 특성          |                  |
| 3-1. 호남과 비호남지역의 차이 |                  |

## 1. 서 론

모정은 호남의 농촌마을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주요한 경관요소이다.

모정은 농민들의 휴식(休息), 회의(會議), 감시(監視)의 목적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건립, 이용, 관리하는 개방형 정자류의 건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4년 1월과 2월, 그리고 하절기인 8월에 행하여진 전라남도 일대의 모정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사의 방법은 도서(島嶼)지역과 도시(都市)지역을 제외한 전라남도의 전 지역에 있어 1개면(面)당 1개소씩의 모정을 표본 추출하여 그 건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그 역사적 전개 및 공동체내에서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한 면접 및 설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총 198개면 가운데 162개 면에서 1개 이상의 모정이 발견되었으며, 한 개 면에 다수의 모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향촌의 주민들의 의견을 좇아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인지도가 높은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다음절에서 논의될 루정과와 자료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루정으로 인정될만한 것은 제외하였다.

모정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는 박광순(1966)과 최재울(1966) 그리고 필자(1994)의 것이 있다. 박광순과 최재울은 1966년 전라남북도의 모든 면에 걸친 우편설문조사와 몇 개 군에 대한 실지답사를 통하여 모정의 사회적 기능과 존재양상에 대한 일차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호남지역 농촌에서의 모정의 존재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한편, 조선 농촌사회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도 간혹 모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병도(1954)는 이것을 삼국시대의 남당(南堂)과 결부된 원시집회소(原始集會所)의 일 잔형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필자는 선행의 연구(1994)를 통하여 1966년의 조사 이

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 건축적인 특성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그러나 선행의 연구가 그 연구기간 상 동절기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 사회적인 기능 및 역사적인 전개에 대하여는 의견을 생략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선 모정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역사적인 전개 및 사회적인 기능 그리고 현 농촌사회에서의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 모정의 일반적 형태

그림 1. 모정의 일반적 형태

## 2. 모정건축과 그 운용

### 2-1. 건축적인 특성

모정의 입지(立地)상 두드러진 특성은 크게 동구(洞口)에 위치하려한다는 점과 주거구역과 경작구역의 경계지에 위치하려한다는 점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기타의 조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마을로의 진입로 변에 입지한 모정이 전체의 37.7%에 이르며, 논과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가 27.8%, 논 가운데 위치하는 경우가 25.3%로 그 뒤를 따른다. 이때 논 가운데 위치하는 것 중에는 마을로의 진입로나, 주요한 농로, 통과도로 등 마을과

외부와의 연결로와 관련 있는 것이 절반을 넘어 전체적으로 진입로변이라고 하는 주요한 입지특성을 보여준다. 그 외에 2마을 이상이 동시에 운영하는 모정의 경우와 마을 내부의 동산 위 또는 공터 옆에 위치하는 사례가 있다. 전자의 경우 2마을(혹은 3마을, 5마을)의 지리적인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두 8개소에서 발견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7개의 사례가 있을 뿐이다.

표1. 모정의 입지유형

입 지 유 형		사 례 수
마을과 경작지의 경계	洞口	61(37.7%)
	당산나무	33(20.4%)
	개울가	9(5.6%)
	저수지, 물	3(1.9%)
경작지내	통과도로변	6(3.7%)
	진입로변	5(3.1%)
	농로변	17(10.5%)
	개울가	8(4.9%)
	당산나무	4(2.5%)
	우물가	1(0.6%)
마을내	산위	3(1.9%)
	놀이터	1(0.6%)
	당산나무	1(0.6%)
마을중간	2마을 중간	6(3.7%)
	3마을 중간	1(0.6%)
	5마을 중간	1(0.6%)
합 계		162(100.2%)

모정의 평면적 규모(平面的 規模)는 1×1칸의 정방형에서부터 5×3칸의 비교적 대규모의 장방형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빈도수가 가장 많은 기본적인 형태는 2×1칸의 장방형 평면으로 전체의 56.8%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2×2칸형으로써 17.9%, 그리고 3×2칸형이 7.4%이다. 이 가운데 2×1칸형과 2×2칸형이 장방형 평면을 가진 모정 가운데 82%를 차지하는데, 이와 같이 장방형 평면의 장변을 짝수칸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목가구조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장방형 평면 외에 6각정의 형태를 띠는 것이 11개 사례, 8각정의 형태를 띠는 것이 2개 사례에서 발견되었다. 한칸의 크기는 240cm(8척)와 270cm(9척)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10cm(7척)와 300cm(10척)가 비슷한 분포를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농가건축에서 확인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사용된 부재의 치수는 건물의 규모나 위계를 가르쳐 주는 또 다른 자료이다. 조사된 모정에 사용된 기둥부재의 치수는 사각기둥의 경우 3분(分)내지 5분각(分角)의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콘크리트로 지은 것은 24cm에서 30cm까지의 지름을 가진 원형기둥이 주로 사용되었다.

평면형의 특수성은 바로 상부가구(上部架構)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장변이 2칸이기 때문에 단변을 가로지르는 보를 중앙에 하나밖에 둘 수 없게 되며, 이것으로는 마루대(宗道里)를 지지하기 힘들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독특한

민간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 하나는 마루대를 길게 연장하여 양 단변의 도리위에 걸쳐 놓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는 활처럼 굽은 재목을 마루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적당한 치수와 곡률을 가진 마루대용 재목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변의 주칸 사이에 보와 나란한 중간보를 2개 가설하여 보와 함께 대공을 사용하여 마루대의 양단을 지지하게 한다.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마루대 양단 하부의 중간보만 2개를 두고 중앙의 보를 생략하기도 한다. 이보다 좀더 간소한 형태를 중앙보만으로 마루대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마루대의 양측에 실린 하중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한편 평면이 정방형에 가까운 모정은 목탑을 세울때와 같이 중앙에 찰주를 세워 상부가구를 지탱하거나 전술한 중간보를 사방으로 돌려 서까래를 지지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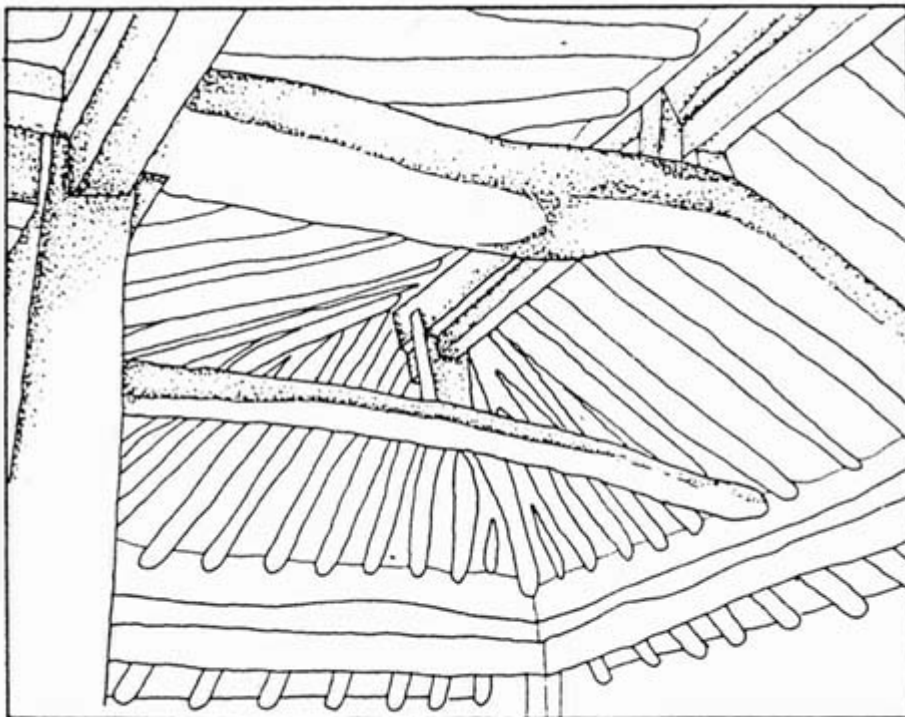


그림 2 중간보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그림 2. 중간보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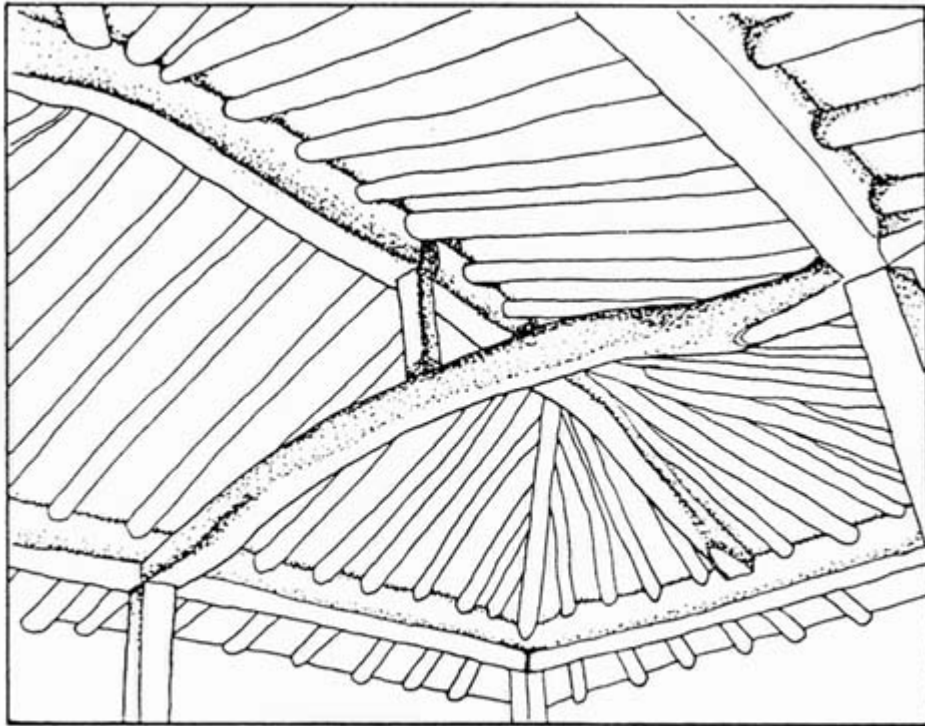


그림 3. 굽은 마루대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그림 3. 굽은 마루대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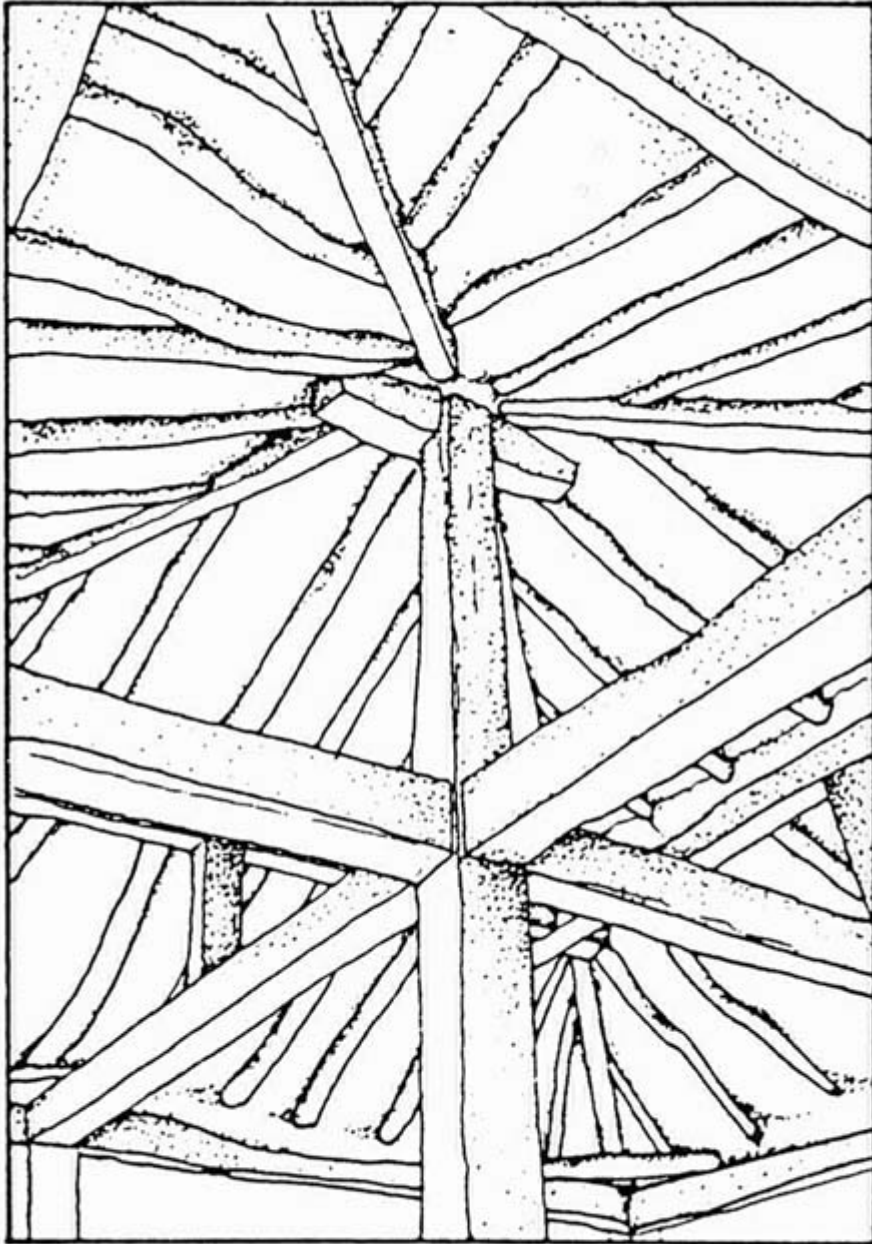


그림 4. 찰주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그림 4. 찰주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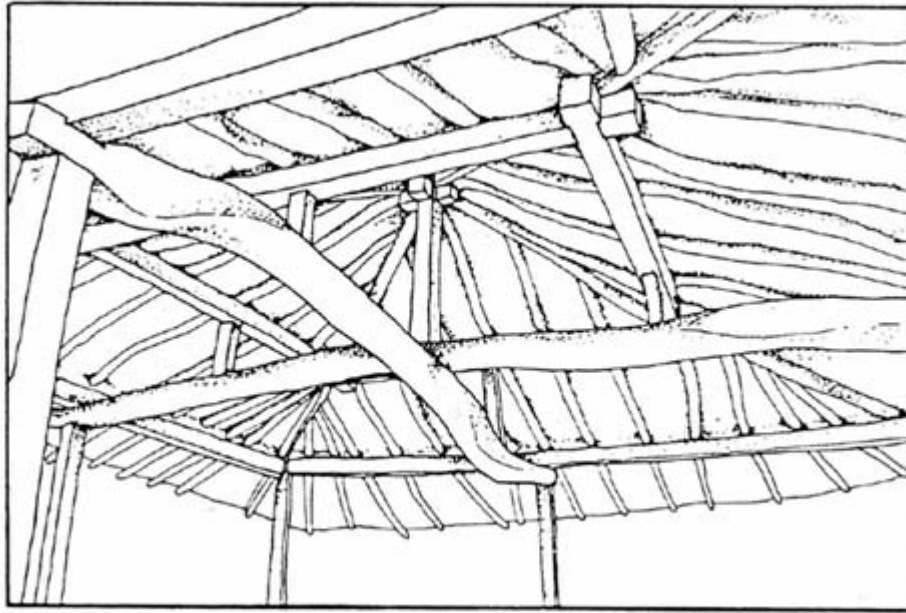


그림 5 사방향 중도리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그림 5. 사방향 중도리를 이용한 상부가구 구성례

이와 같은 상부구조를 가지고 무거운 지붕을 얹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비교적 상부가 가벼운 초즙(草菁)의 사모지붕(우진각지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의 조사에 의한 결과도 슬레이트나 기와를 재료로 사용한 우진각 지붕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으며, 그 외 24%에 해당하는 39개소에서 팔작지붕을 사용하였다. 모정이라는 용어가 드러내는 바와 같이 모정의 지붕재료로서는 초즙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초가의 경우 매년 이영을 새로 이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그나마 통일벼의 보급으로 재료의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은 왜식기와를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60%에 이르고, 초가로 되어있는 경우는 단지 1개소에서 확인하였을 뿐이다.

권위건축에서 기둥상부와 상부의 가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장재료로서도 크게 기여하는 공포는 여기서 사용되지 않는다. 본격적인 공포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주두 및 소로를 가진 익공류의 공포가 사용되는 경우가 전체 목가구조의 결구를 확인할 수 있는 117개의 사례 가운데 20%를 차지하며, 사개맞춤이 50%, 장부맞춤이 27%를 각각 차지하여 이 세가지 형식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고식이라고 판단되는 상투걸이의 기법은 단지 3개소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보와 도리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엇갈린다는 점에서는 상투걸이의 기법과 일치하나, 무안군 삼향면(務安郡 三鄉面)의 예에서와 같이 건립연대가 일제시기이고 일본인 목수가 지었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미국식의 싱글스타일의 변형 혹은 영향으로 볼 수도 있겠다. 다른 2개소의 사례도 역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경우로 생각된다.

바닥면은 장마루를 깐 것이 전체의 64%에 달하는 104개소로서 가장 많고, 우물마루

로 가설한 경우는 단지 3개 사례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공사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모르타르 마감을 하고 그 위에 나무 평상을 높거나 비닐장판을 까는 경우도 있다. 바닥면과 지면의 높이차는 10cm에서 88cm까지 다양하게 보이지만, 대개는 40-60cm의 범위안에 있고 평균 53.5cm의 치수를 가진다. 이 정도의 높이차는 섬들을 한단 두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경우의 일반적인 치수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 정도의 높이는 난간을 두지 않을 경우의 최대한의 치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전체의 사례 가운데 114개소에서는 난간을 두지 않았고, 계자각(鷄子閣)의 의장적인 난간을 두른 경우는 1개소, 살난간을 두른 경우도 20개소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최근의 소구로써 콘크리트 난간이나 파이프난간을 가진 경우이다. 이점도한 계변 루정과 크게 차이나는 모정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모정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수장재는 침목(枕木)이다. 침목은 장마루 널의 양단을 내리누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모정의 주요한 이용행태의 하나인 낮잠용의 목침의 역할을 한다. 43개소를 제외한 119개의 사례에서 침목을 가설한 예가 발견되어 난간의 없음과 함께 침목의 설치는 간이용 건축물로써의 모정의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한 수장적 특성이라고 할만하다.

## 2-2. 모정의 기능과 이용

모정의 기능(機能)에 대하여는 휴식, 회의, 감시를 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전봉희, 1994 : 71) 그러나 현재의 사용 행태만을 가지고 설명하면, 모정은 농촌에 있는 노인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급격한 이농에 따른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한상복의 연구에 따르면, 1977년 현재 농촌 및 어촌의 인구가 타지역으로 이출(移出)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이출의 특징적인 양상으로 젊은이의 도시진출을 들고 있다. 그 구체적인 자료로 조사대상 마을 3개소에서 지난 10년간(1968-1977) 15-25세 젊은 남녀의 70% 이상이 도시로 이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한상복, 1977 ; 173), 당시의 이농(離農)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전반적인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농현상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1993년 말 전국의 농가인구는 1980년 이후 13년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조선일보, 1994.3.5.10면) 이와 더불어 농가인구의 고령화(高齡化)현상은 이미 1977년의 자료로써도 추정이 가능하며, 1993년 말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농가인구의 23.4%를 차지하며, 50세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 42%를 차지하여 이 역시 최근 10년간 두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농가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는 농촌사회의 구성을 크게 변질시킨 요인이며 모정의 여러 기능 가운데 노인들을 위한 휴식처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정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학술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회의소로서의 이용이다. 선행의 연구가 모두 경제사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점은 이 같은 모정의 기능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회의소에 관한 기능은 이병도의 경우와 같이 원시마을공동체집회소로서의 기능과 농업노동의 협동작업, 구체적으로 두레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 두가지 면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그러나 두레조직은 일제시기의 작업반 혹은 진흥회(주강현, 1989 : 40)의 구성에 의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보다 결속력이 완화된 형태로서의 품앗이조차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젊은이의 도시진출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한편, 농업기술(農業技術)의 변화(變化)는 농사 작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농업기술의 변화는 노동대상에 대한 기술혁신과 노동수단에 대한 기술혁신으로 나타난다.(이정덕,1984 : 3) 전자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1970년 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급이 확산된 통일벼계통으로의 품종(品種)변화와 그에 따른 시비법(施肥法)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경운기와 콤팩트기로 대표되는 기계화(機械化)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두레는 모내기 이후의 김매기에 직접 관련이 있는데, 비료의 사용으로 손에 의한 제초작업인 김매기가 사라지면서 두레작업반의 구성필요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이정덕,1984 ; 27) 또한 탈곡기, 이앙기, 콤팩트 그리고 다목적 기능의 경운기의 사용으로 작업에 필요한 동시작업인원의 수를 감소시켰다. 게다가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은 이러한 기계의 사용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공동체(共同體)적인 질서(秩序)도 차츰 사라지게 되어 마을 전체의 일을 위한 공동의 회의의 필요성은 갈수록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파괴는 자연히 건축적인 환경의 설정에도 영향을 미쳐 마을회의를 위한 모정의 사용빈도는 떨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 이전에 있었던 1966년도의 조사를 따르면 모정의 사용행태에 대한 설문에 36.3%(박광순,1966 : 97)가 회의를 들고 있으나, 현재의 조사에서는 그 빈도가 12.6%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모정의 또 다른 주요한 기능은 감시소로서의 기능이다. 기능과 용도에 관한 면접조사에서 감시소로서의 기능을 언급한 응답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모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작업반의 이탈을 막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감시소로서의 모정의 기능을 잘 말해주는 것은 입지특성이다. 모정의 입지는 과거의 조사나 현재의 조사에서 모두 동구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지와 경작지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마을과 외부세계의 연결점을 지키고, 마을로의 진입 및 외부세계로의 진출을 감시하는 기능이 자연스럽게 모정의 입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 2-3. 정자, 루정과 모정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정은 초즙의 벽이 없는 헛간채와 같은 간단한 구조를 그 시원으로 하여 발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루정과 비교된다. 정자는 곧 정사(亭射)로 사(射)는 ‘대(埴)위에 있는 집으로 방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만영,1798, 1980 : 570)을 가리킨다. 정자를 ‘머무르는 곳(정(淸),정(停))’ 혹은 ‘등림관람처(登臨觀覽處)’라고 사전식으로 정의하면 살림집(主家)이나 종교 혹은 행정을 위한 건물(공(公), 사원(寺院))과의 구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여 정자는 야외생활을 위한 반주거용건축물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매우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루정이라는 용어는 정자와 루각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며, 루각은 마루가 높이 가설된 다락집이라는 뜻에 주안을 두는 경우이다. 굳이 루와 정을 구분하자면, 루가 비교적 큰 규모이며 망(望)하는 곳이라면, 정은 이보다 작은 규모로 관(觀)하는 곳이고, 루가 보다 공공적인데 반하여 정은 보다 사적(私的)인 성격이 강하며, 루가 정치적인 장, 객관에 부속된 것이 많다면, 정은 행사적인 장, 장수지소의 성격을 갖는 것이 많다.(안계복,1989 : 183-184)

이와 같은 투정은 지방유림들의 시단이나 계회를 위한 것에서부터 모정과 같이 농군들을 위한 것, 그리고 심지어 씨족의 산소를 위한 제각(祭闈)까지도 정자 혹은 투정으로 속칭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간단한 분류가 필요하다.

모정을 기타의 투정과 비교하여 보면, 우선 기능에 있어 투정이 종교, 정사, 유희, 군사, 행사, 발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박익수, 1990 ; 8-9) 반하여 모정은 농촌마을 혹은 농사작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능만으로 축소된다. 건축적인 격식이거나 의장의 위계에 있어서도 투정이 권위건축의 한 유형에 속한다면, 모정은 농가와 같은 일상건축의 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투정이 그 고유한 이름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모정은 따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事蹟)이나 당호(堂號)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41개소(25%)에 불과하다.

운영·관리의 면에 있어서 일반의 투정이 문중(門中) 혹은 기관(관아, 향교, 서원, 유림 등)의 건립, 이용, 관리되는 것에 반하여(김동수 1988 : 27) 모정은 마을내 주민들의 공동건립, 공동이용, 공동관리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실제 조사된 내용을 따르면, 건립시의 비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조 없이 순수하게 마을의 공동기금만으로 건립한 경우가 57.4%에 이르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그 마을출신의 도시인들이 돈을 보태거나 정부의 일부보조를 받아 건립한 경우까지를 합하면 전체의 87%에 이른다. 단지 나머지 13%의 경우에서만 정부보조만으로 건립되거나 한 두 명의 독지가의 기증에 의한 것이다. 또한 관리의 주체에 있어서도 단지 4개소의 사례에서만 정부나 개인의 소유·관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반적인 정자와는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모정이 향촌사회의 내부에 얼마나 깊이 융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사실이다.

### 3. 분포적 특성

#### 3-1. 호남과 비호남지역의 차이

모정의 분포에 대한 현재까지의 의문은 이렇다. 즉, 모정이 호남지역(전라남도과 전라북도)에만 존재하느냐, 또 모정은 호남지역 어디에나 존재하느냐 하는 두가지의 의문이다.

우선, 모정이 호남지역에만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에 있어서는 현재까지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전라도와 인접한 경상남도(慶尙南道)의 하동(河東)과 함양(咸陽) 두개 군을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興龍里)에서 1개, 함양군 함양읍 관평리(觀坪里)에서 2개의 모정을 각각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양지역에 대한 면접조사의 결과는 모정이 전라도의 고유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동에서 발견한 모정은 대개의 전라도 모정과는 달리 화수정(花樹亭)이라는 편액을 가지고 있으며, 1932년 이 마을에 사는 밀양 박씨 씨족이 건립한 것이라는 사적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현재에 있어서의 이용은 성씨를 가리지 않는 마을 사람 공동의 휴식처이기는 하나 건립의 주체가 분명하고, 관리 또한 밀양 박씨 씨족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모정이 마을공동의 건립과 마을공동의 관리에 있는 전라도의 모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와 같이 향촌 내의 유력씨족에 의한 건립과 운영의 예는 전라도에도 있다. 전라남도(全羅南道) 영암군(靈巖郡) 신북면(新北面) 모산리(茅山里)의 예가 그것이다. 모산리는 문화(文化) 유씨(柳氏) 모정공파(茅亭公派)의 자작일촌으로써, 마을내 영팔정이라는 정자와 우산각이라 부르는 모정의 두가지를 가지고 있다. 영팔정(詠八亭)은 조선조 태종년간의 초창이래의 중수기록을 가지고 있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을 가진 격식있는 건축물임에 비하여 경작지 가운데 있는 우산각은 그 초창의 연대가 분명하지 않고 건축적인 격식에 있어서도 타 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산각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두 정자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주로 마을내의 연장자층이 우산각을 이용하고, 그보다 연소자층이 영팔정을 이용한다. 이러한 연령별 이용의 차이는 그 위치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즉, 건축적 격식의 위계와는 관계없이 우산각은 농경지(논)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영팔정은 농경지에서 도로를 건너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 중의 휴식을 위하여 연장자가 가까운 우산각에 자리를 잡으면, 그보다 연소한 계층은 아무래도 노인네들과 같이 있으면 불편해서 좀더 거리가 떨어진 영팔정까지 올라와서 쉰다. 이러한 공간이용행태는 점차로 관습화되어 작업을 나가지 않는 날에도 젊은층이 영팔정을 차지하면 노인들은 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우산각에서 논다. 이와 같이 현재의 이용에 있어서는 영팔정과 우산각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과거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영팔정이 위치하고 있는 그 배후의 얽은 능선에는 죽봉사우(竹峯祀宇)가 있으며 죽봉사우와 영팔정의 사이에는 과거에 면 서기주재소로 사용되었던 당우가 한채 있다. 또한 영팔정의 각 주간 도리에는 모산팔영(茅山八詠)을 적은 편액이 있고, 전면의 4기둥에는 주련이 있어 이곳이 과거 양반사족의 읍풍농월처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둘 사이에는 건축적 격식의 차이뿐 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도 과거에는 있었다. 현재에도 당산제를 지냄에 있어 당산 나무와 영팔정이 주요한 의식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산각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모산리의 예를 호남에 있어서 루정과 모정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라고 생각할때, 하동읍의 그것은 영팔정과 우산각의 중간적인 - 그 건립의 시기에 있어서나 사용·관리의 면에 있어서나 - 존재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도 지역의 모정의 성격에 대하여 함양읍의 경우에는 더욱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함양읍 관평리는 경상남도의 서부지역과 전라북도의 동부지역을 잇는 주요한 교통로 가운데 하나인 24번 국도에 연결해 있는 마을이다. 관평리에는 현재 3개의 자연마을에서 모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1989년 이후의 소작이다. 1989년 관룡리의 신기마을에서 처음 모정을 세우고 모란정(慕蘭亭)이라는 편액을 걸고 다시 중앙 기둥에 사단법인(社團法人) 함양군노인회지부신기노인정(咸陽郡老人會支部新基老人亭)이라는 세로 간판을 달았다. 이후 관룡리 일대에 세워진 모정은 모두 노인정이라고 속칭하게 된다. 신기마을의 경우 건립의 동기는 팔령(팔랑재) 너머의 남원땅에 있는 모정을 보고 우리고 저런 것을 하나 지어 보자고 하여 지은 것이며, 관룡리 내의 다른 두 마을은 신기마을의 예를 보고 지은 것이다. 건립의 비용은 전라도의 예에서와 같이 마을 주민이 각기 1-2만원씩 각출하고, 대처에 나가있는 마을 출신의 유지들이 또 2-10만원씩 부조를 하여 지은 것이며, 일체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는 없었다. 관룡리의 노인정은 전라도의 모정과 같은 긴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기능에 있어서도 영농 기술의 변화에 따른 단순협동 노동조직의 와해 이후 모정의 기능이 단순히 휴식의 기능으

로 굳어진 것을 모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능 및 구조만으로 볼 때는 전라도의 모정과 함양읍의 노인정을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기원에 있어서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공간 인지상의 구조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두 곳(함양읍과 하동읍)의 예에서, 최근 전반적인 지역적 독자성의 와해와 더불어 모정의 일부 기능과 형태가 전라도와 인접한 경상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갔으며, 모정이 전라도에만 있는 농촌경관적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는, 일정한 시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모정은 전라도에만 있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에 대한 양시적(兩是的)인 가설이 가능하다. 다만, 그 어느 경우라 하여도 모정이 호남의 특징적인 경관요소하는 점은 확실하며, 모정을 호남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증거하는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2. 전남지역내의 분포상황

모정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또 다른 의문사항은 호남지역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분포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기초적인 관찰을 통한 결론은 호남내의 모든 지역에 등밀도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 개면을 기준으로 발견된 모정의 절대수를 면당(面當) 발견빈도(發見頻度)로 구분하여 표시한 그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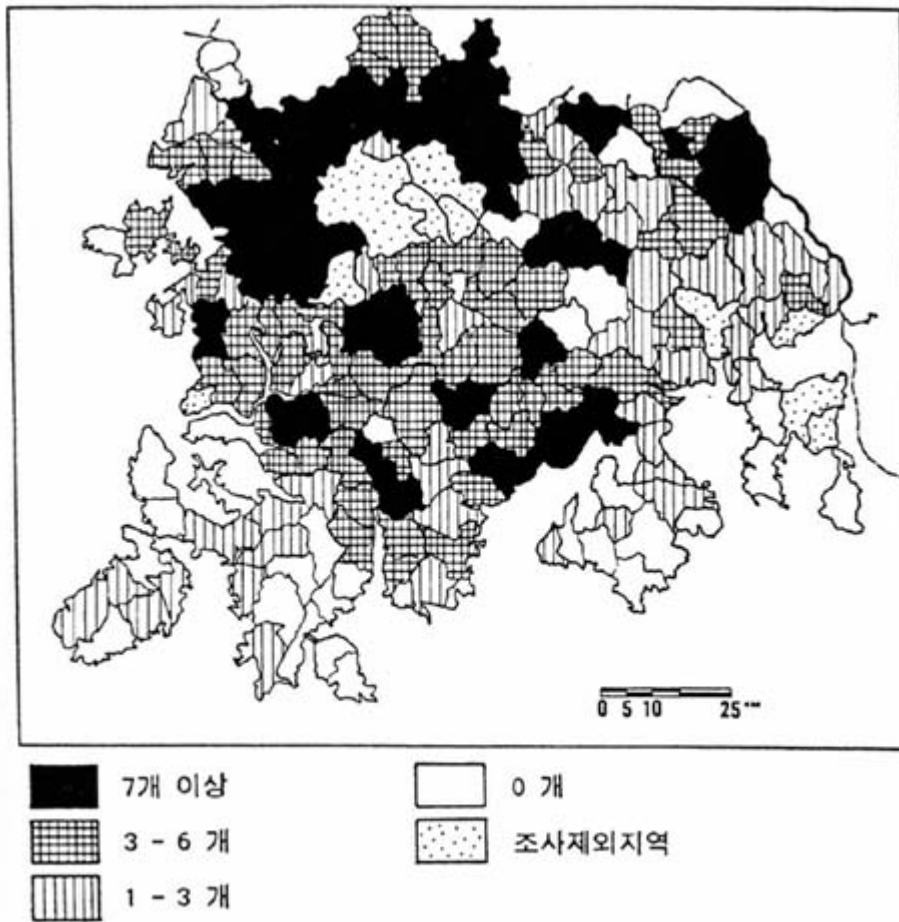


그림 6. 묘정의 발견빈도

그림 6. 묘정의 발견빈도

본 연구의 주 대상 지역인 전남지역에 대한 조사의 결과 마을주민들이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만도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칭에 대한 조사는 조상대상의 묘정을 가리키며 이것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알아보는 1차적인 호칭에 대한 조사와 다른 지역에서 부르는 호칭들에 대한 인지도의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개 이상의 명칭에 대한 인지도를 보여 주었다. 조사결과 크게 우산각, 모정, 시정, 동각 등의 4가지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정각, 정자, 팔각정 등의 응답을 구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에 퍼져있는 명칭은 우산각으로서, 우산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지역은 거의 없었다. 또한 본 연구의 제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정이라는 호칭에 대하여는 우산각 다음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1차적 호칭으로 조사된 것은 영산강을 경계로 한 그 서북부지역 즉,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군 지역과 섬진강 수계에 속하는 곡성군 정도에 한정된다. 이들 지역은 또한 시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지역과 일치한다.(그림7.참조) 한편, 동각의 사용범위는 나주군, 무안군, 보성군 지역에 국한됨으로써 강한 국지(局地)지역성을 보인다. 이들 호칭의 분포상황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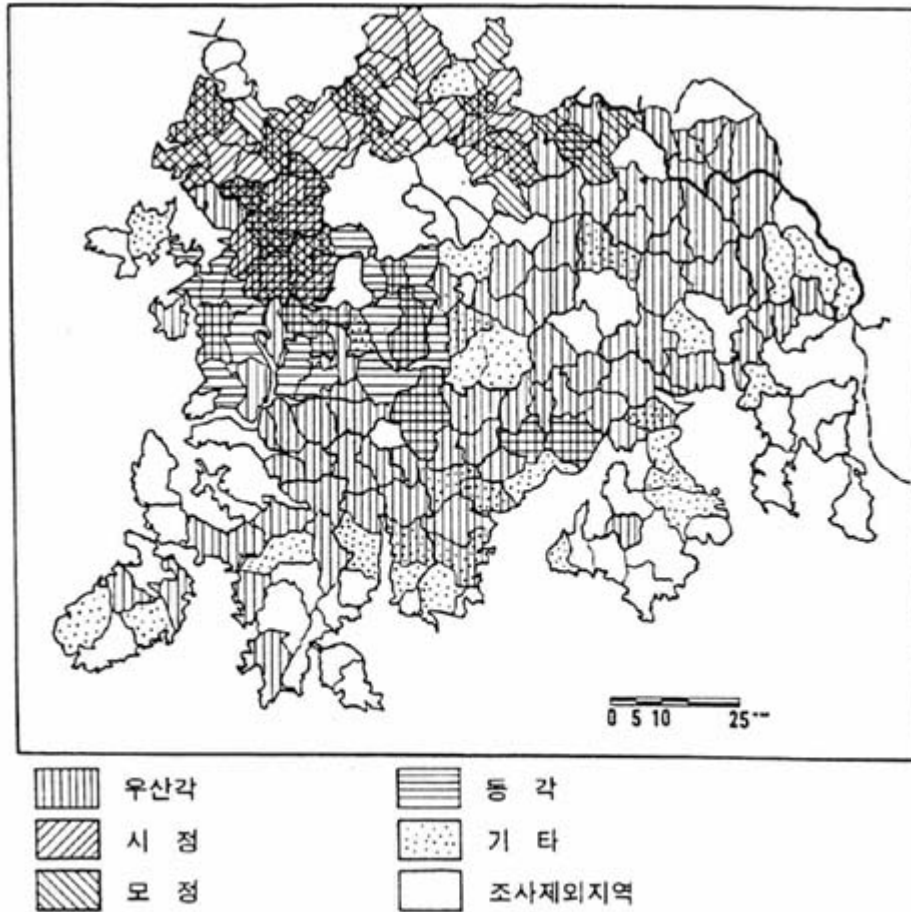


그림 7. 호청의 인지도 분포도

그림 7. 호청의 인지도 분포도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주군의 서부지역과 함평군, 장성군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용되는 호청의 수가 단순해지고 더불어 우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넓게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모정의 발견빈도와 호청의 인지도 분포도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비교해보면, 사용되는 호청의 다양성이 모정의 발견빈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호청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곳은 반드시 높은 밀도를 보인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영산강의 중류지역을 중심지역으로 방사상으로 나아갈수록 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평면규모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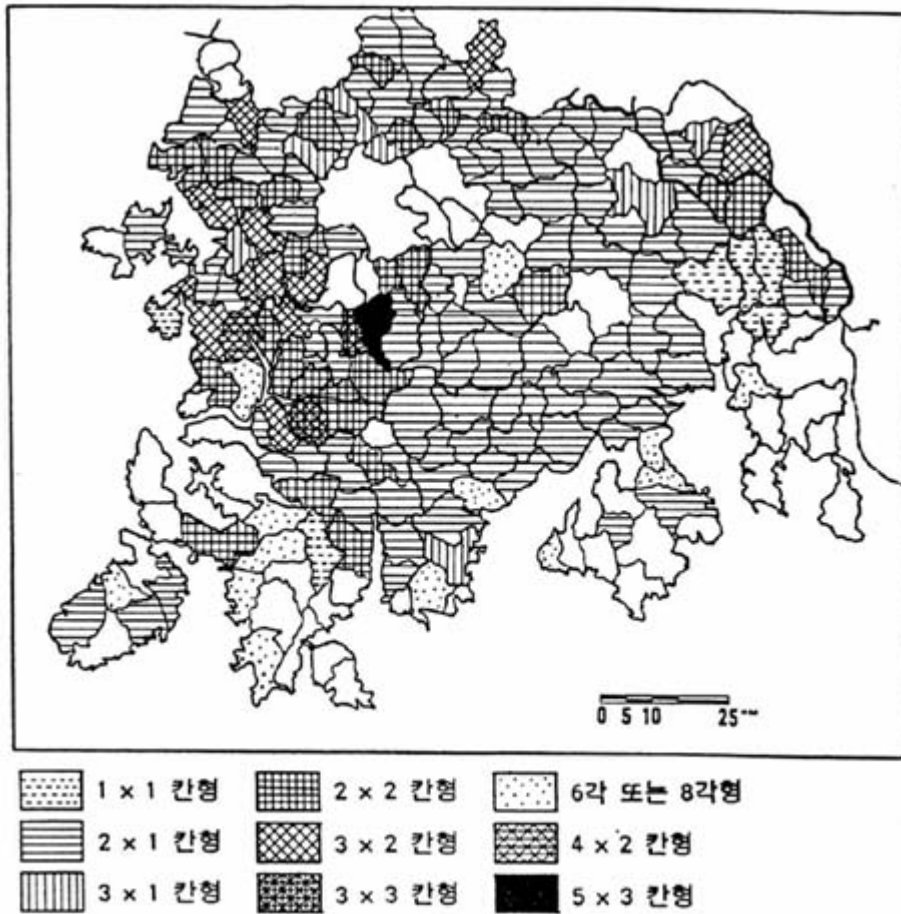


그림 8. 평면규모의 분포도

그림 8. 평면규모의 분포도

여기서도 역시, 나주군과 함평군, 장성군과 영광군, 나주군의 일부지역에서 규모가 큰 모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구례군의 일부지역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들 지역의 경우 최근 군(郡)의 공식적인 지원하에 대규모로 개축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이 모정의 발견빈도와 호칭에 대한 인지도의 다양성 정도 그리고 평면규모의 분포에 있어 모두 비슷한 특성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영산강의 중류지역이 모정의 건립과 이용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벼농사와의 관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정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기능 가운데 공동노동(단순협업)에 의한 필요를 가장 경제성 있는 기능이라고 가정할 때, 벼농사지역 즉, 논이 많은 지역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정은 두레가 형성되고, 호미를 걸어두는 장소로서 뿐 만 아니라 수도작 농업지대의 생산활동의 중심지(주강현, 1989 : 66)이기 때문이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소위 나주평야로써 전남 전체 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권혁재,1987 ; 180)

이상과 같은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전라남도에 있어 모정의 운영은 벼농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생각할때, 영산강의 중류지역인 나주군의 서부, 함평군의 동부, 장성군, 담양군의 남부지역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일제시기 대단위의 간척사업이 진행된 보성지역의 일부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나머지 지역은 너른 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정의 운영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최근에 출향인사의 경제적 성장과 그들에 의한 고향에 대한 봉사의 차원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간 노인정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경상도의 일부지역에서 발견된 모정 역시 이와 같은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 4. 모정의 역사적 전개

##### 4-1. 모정의 발생

모정의 기원에 대하여는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먼저, 이병도는 원시집회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모정을 원시 마을공동체의 집회장소인 남당과 관련하여 보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기원의 예는 삼국의 여러 곳에 골고루 퍼져있는 문헌적인 기록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현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정은 전라도의 특징적인 농촌경관 요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정의 주요한 기능을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수정법에 따른 단순협업노동의 필요에서 찾을 경우 현재와 같은 모정의 기능이나 형태를 고려하기 이전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촌공동체의 공간적인 심볼로서 본다면, 모정의 탄생은 아무래도 17세기 이후로 내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근거는 우리나라에 있어 향촌사회의 재편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한 17세기초에 전반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이다. (전봉희,1992 : 27-8)따라서 토착적인 향촌공동체와 밀접하게 관계있는 모정이 이들 향촌의 재편기에 무사하였으리라는 전망을 하기는 힘들다.

한편, 실제 조사대상의 경우 현재와 같은 자리에 같은 형태로 모정이 건립된 시기를 확인한 결과(지붕을 새로 잇는다든지, 현 부재를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경우는 무시하고, 무너진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짓는 중건의 시기를 포함하여) 전체의 절반이 넘는 98개의 사례가 1980년 이후의 건립이고, 해방이전의 50년 이상된 건물은 전체의 5%, 20년 이상된 것은 전체의 22%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모정의 시원을 설명해주는 자료로써는 부족한 것이지만, 모정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건물의 수명을 추정해주는 자료로써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모정의 수명은 20년 내외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1966년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당시로부터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일제시기에 건립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52%(박광순, 1966 : 102), 60%(최재울, 1966 : 38)에 달하고, 50년 이상의 연륜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일제시기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응답은 8%내지 9%에 불과하여 대체로 모정의 수명을 30년 내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향촌사회의 재편성, 이양법의 보급으로 대표되는 수도작 기술의 변화, 현존하는 유구의 수명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양상과 같은 모정의 건립은 조심스럽게 17세기 이후의 소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2. 근대의 변화양상

현전하는 모정에 관한 최고의 자료는 일제시기의 것이다. 일제시기에 지어졌다고 하는 모정이 현존할 뿐 아니라 일부 농촌사회경제학자의 농촌조사기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레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를 내놓은 영목영태랑(鈴木榮太郎)에 따르면, ‘...두레를 하는 날에는 아침에 큰 북소리에 의해 모인다. 장소는 사당이다. 사당은 어느 부락에나 있다. 사당은 한자로는 射亭이라고 쓴다. 부락의 일꾼은 물론 부락사람 누구나 모여서 놀며 휴식하는 곳이다. 부락의 집회광장이기도 하다. 또 부락의 공원이기도 하다. 대개 작은 숲으로 되어있으며 여름에는 서늘한 나무그늘이 있다. 사당에 나무는 의례있기 마련이어서 사당나무라고 하는 말도 있다. 사당에 모인 두레꾼들은 거기서부터 穀物(軍物)을 힘차게 올리면서 작업지를 행해 대열을 이루고 나아간다...’(영목영태랑, 호남농촌조사야장반서 鈴木榮太郎, 湖南農村調査野帳拔書. 이보형 외, 1989 : 142에서 재인용)

위의 자료는 영목(鈴木)가 1944년 2월 하순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신전부락에 약 1주일간 머물면서 조사한 호남의 농촌사회생활에 관한 답사지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사당, 射亭, 사당나무 라는 용어가 눈에 띄는데, 이것을 각각 당산, 시저(혹은 우산각), 당산나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의 단기간에 걸친 모정 운용의 변화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1966년의 조사와 본 조사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66년에 행하여진 조사에서 박광순은 전라남북도의 전지역에 대한 우편설문조사를 표본 추출하여 자료로써 이용하였고, 최채율은 그 가운데 5군을 골라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답사 및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각각 보고하고 있다. 조사의 범위, 방법, 대상이 조금씩 상이한 점을 담고 있지만 아직 이농(離農)의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1966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농촌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우선 분포상황에 있어 박광순이 행한 조사방법은 우편에 의한 응답의 수와 응답자 가운데 모정이 있다고 보고한 수를 조사하였는데, 보고된 총수에 있어서는 담양군, 장성군, 광산군의 경우가 타군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월등한 빈도를 보이고, 응답총수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는 광산군,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영암군, 나주군, 강진군, 승주군, 함평군 등이 70%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박광순, 1966 : 90-91) 필자의 조사는 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시행되었고 조사방식도 관찰에 의한 결과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전라남도의 서북부 지역과 영산강 하류지역에 높은 밀집도를 보인다는 점은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전남지역에 대한 문화권적 고찰을 위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민가의 유형분류에 의한 3개권역 즉, 영산강수 계권, 섬진강수 계권, 도서지역권(최일, 1993 : 545)가운데 영산강수 계권이 모정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66년의 자료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진도군에서는 몇개의 모정이 발견되어 연륙에 따른 지역간 문화전파를 알 수 있었다.

모정이 세워지는 위치에 대해서 최채율은 매우 재미있는 가설을 제시하는데, 시기가 내려올수록 경작지에 가까운 곳으로의 이동현상이 보이며 이것은 회의소로서의 기능보

다 휴식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된 결과라는 것이다.(최재율, 1966 : 38) 즉, 일제시기 이전에 건립된 것 가운데는 마을과 경작지의 중간에 세워진 것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마을의 입구나 마을내에 있는데 반하여, 해방이후의 것은 마을과 경작지의 중간에 위치한 것이 18%, 마을의 입구에 입지한 것이 35.5%,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것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상황을 이와 같은 분류방식에 맞추어 살펴보면, 마을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는 6%로써 더욱 줄어들고 마을과 경작지의 경계 또는 경작지내에 위치한 것이 53.1%에 이른다. 그런데 현재의 조사에서 경작지내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례 가운데는 과거의 진입로와 현재의 진입로가 다르거나, 경지정리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치만큼의 급격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상정한다고 할지라도 1966년의 전체사례에서 18.9%에 불과한 마을과 경작지의 중간입지형이 1994년의 조사에서 53.1%로 증가하였다는 점은, 마을입구에 입지하는 경우가 각각 37.7%로 1966년의 조사나 1994년의 조사에서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특징적인 양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마을의 내부에 세워지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농토내의 농로 옆이나 개울 옆 등에 세워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이며, 그 입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농업노동 협동방식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회의소로서의 기능보다는 휴식소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정의 기능에 대한 설문에서 훨씬 극명하게 드러난다. 조사방법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복수의 응답을 구하여 그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66년의 조사에서 공동휴식에 대한 응답과 집회소로서의 사용에 대한 응답은 각각 52.8%와 36.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장소로서의 기능이 7.3%, 작업장으로서의 사용이 2.0%를 차지하였다.(박광순, 1966 : 97) 그러나 1994년도의 조사결과는 휴식을 위한 것이 75.6%로써 가장 많고 마을회의하고 응답한 경우는 12.6%에 지나지 않는다. 입지의 경우에서 이미 추정된 바와 같이 회의를 위한 기능이 축소되고 공동휴식을 위한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특기할 사실은 교육장소로 사용된다는 응답이 단지 1개의 사례에 불과하고 대신 마을의 잔치(백중이나 칠석, 혹은 혼인 등 마을내 주민의 경사시)나 초상을 치르는 장소로 사용된다는 응답이 6%로 1996년과 비교하여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 외에 농작물이나 농기구의 보관과 같은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4%를 차지하였다.

남녀노소별 이용자에 대한 물음은 역시 모정의 기능변화를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음의 표는 이용자를 남녀별, 노소별로 구분하여 4개의 유형군으로 분류하고 그 구성비를 조사한 것이다.

표2. 이용자의 특성

	노인들만	연령제한 없이
남자들만	I 유형(37%)	II 유형(12%)
남녀 모두	III 유형(8%)	IV 유형(43%)

여기서 I 유형은 남자노인들만 사용하는 경우이고, IV유형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또한

청장년층과 노인층을 구분하지 않는 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한편, II유형은 남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고, III유형은 노인(대개의 경우 농촌에서는 환갑을 지나면 노인대접을 받는다.)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병도는 모정을 원시집회소의 잔흔이라고 밝힌 전술한 논문에서, 성인남자가옥(Mannerhaus)와 공동체가옥(Gemeindehaus)의 개념(이병도, 1954 : 3)을 인용한바 있다. 원시집회소로서의 공동체 가옥의 형태는 I 유형이 대표하는 것이라면, 근대화된 마을 공동의 휴식소로서의 기능은 IV유형이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II유형은 대체로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굳이 노년층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이며, III유형은 역시 시간대별 혹은 시기별 이용의 시간을 달리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1966년의 조사에서 여자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단 한군데도 없었던(박광순, 1966 : 97)사실에 비추어 놀랄 만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다만, 연령별 사용에 있어서는 당시에 57.4%의 사례에서 연령제한 없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모정의 건축적 형식에 대하여는 선행의 연구에서는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구조에 대하여 조사에서 방의 유무에 대한 설문이 행하여진 것이 있다. 총 150개의 사례 가운데 마루만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132개소, 방과 마루로 구성되었다는 응답이 8개소, 나머지 기타가 10개소로 보고된 바 있다.(박광순, 1966 : 79)현재의 상황은 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선행의 연구가 우편설문 방식으로 행하여져 대상 모정의 선정이 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반면, 본 조사는 필자의 구분 방식에 따라 투정과 모정을 분류하여 대상을 선정한 것에서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5. 결 론

이상에서 모정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 분포적인 특성 그리고 역사적인 전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모정은 호남지역의 특징적인 농촌경관요소로써 방을 갖지 않고 마루로만 구성된 개방식 정자류의 건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분포에 있어서는 호남지역 특히 영산강 연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빈도수나 규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라도의 전지역 그리고 경상도 인근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나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정의 발생과 전파는 농업노동 특히 수도작 노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며, 또한 마을 공동체의 회의소로서의 기능이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의 모정의 기능 및 용도는 마을주민들의 휴식소 또는 감시소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피에트로 벨루스키는 공동체적 건축을 소수의 인텔리나 전문가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공동된 체험을 바탕으로 공통된 문화유산을 가진 전 구성원의 자연발생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공동체적 예술(루도프스키, 1979 : 서문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하였다. 공동체적 건축이 가지는 의의는 그 건축예술적인 구성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조건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이라는 시각을 가질 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모정은 마을의 전 구성원이 건립에서부터 이용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동체적 건축이다. 공동체적 건축으로서의 모정이 갖는 건축학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정은 현대적 전승물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모정의 예에서 살아있는 전통의 건

강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 모정은 박제되어 박물관에 남아있는 전통이 아닌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전통의 좋은 본보기이다. 모정을 살아있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며 몇몇의 전문가들에 의한 계승이 아닌 다수의 필요와 합의에 의한 공동창작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모정은 호남지역의 국지적(局地的)인 문화권(文化圈)을 구분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모정은 전라남북도의 전지역에 골고루 분포하는 간단한 구조물이다. 이와 같이 전지역에 골고루 그리고 밀집되어 분포하는 건축물은 주택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모정의 지역적 분포상황과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민가와 함께 호남지역의 문화권을 세분하는데 매우 유용한 보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정은 권위건축물에서 볼 수 없는 일상적인 기법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건축사학 가운데서도 목가구조에 대한 연구는 권위건축에 대한 것에 치중되어온 경향이 있는데, 권위건축이 복잡하고 정교한 가구구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모정의 가구기법은 매우 단순한, 따라서 따라하기 쉬운 가구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평범한 구조의 가치는 재료, 공법 등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는 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 참고문헌

- 權赫在, [한국지리] 법문사, 1987
- 金東洙, '朝鮮時代 羅州地方의 有力士族, [羅州地方 樓亭文化의 綜合的 考察] 전남대호남문화연구 소 pp.1-28. 1989
- 朴光淳, '全羅道 亭子文化論' 월간 예향 통권70호 pp.49-53. 1990년 7월
- 朴益秀, '韓國 亭子建築의 類型分類에 관한 研究' 호남대학논문집 제11집 pp.-15.1990
- 安啓福, '韓國의 樓亭名 選定에 관한 研究' 한국전통문화연구 제5집 pp.145-223. 1989
- 李晩永, [財物譜] 1798, 아세아문화사 영인. 1980
- 李丙燾, '古代南堂考' 서울대학교논문집 제1집 pp.1-20. 1954
- 李廷德, '水稻作技術變化에 따른 農業勞動의 變化' 서울대학교 인류학석사학위논문 1984
- 田鳳熙, '全南地域의 茅亭建築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5집 통권67호 pp.69-79. 1944년 5월
- '朝鮮時代 氏族 마을의 內在的 秩序와 建築의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 조선일보, 1994년 3월 5일자 10면 '농업만으론 못먹고 산다.'
- 주강현, '두레노동의 사적 검토와 생산문화' 이보형 외, [노동과 국] pp.11-85. 학민사. 1989
- 崔 壹, '全南地方 民家 平面 類型 研究, 無涯 李光魯教授 停年退任紀念 建築學論叢 pp.529-546, 1993
- 崔在律, '茅亭이 農村社會經濟에 미친 影響' 호남문화연구 제4집 pp.1-67. 1966
- 韓相福, '韓國의 人口過程에 관한 人類學的 研究' 한국문화인류학 제9집 pp.167-174. 1977
- 鈴木榮太郎, '湖南農村調査野帳拔書' 이보형 외, [노동과 국] pp.132-144. 학민사. 1989